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인간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말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은총의 말씀을 들으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들

(벧전 2:11)



베드로전서는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내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 외친 복음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벧전 1:6).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잠시 근심하는 성도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준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그렇다. 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이다. 남다른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고 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영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다만, 나그네와 행인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태도는 무엇일까?

분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

영혼의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 영광의 기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그 날까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란다. 왜냐하면 하늘의 분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고향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자라난 고향 직접 체험했기에 여전히 눈에 선한 그 곳! 그리워할 것 같고 잊을 수 없고 늘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 만일 우리가 하늘의 분향도 이와 같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하늘의 분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골 3:2). 비록 빠르고 분주한 현실의 생활 속에 매여 있는 우리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늘 분향을 늘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발은 흙을 밟고 서 있지만 시멘트 바닥 위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저 황금, 보석, 수정으로 단장된 하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계 21:18).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미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 21:2). 이 말씀을 같이 음미해 보라.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영광은 저 하늘 분향에 비할 때 정말 아무 것도 아니하게(22:1-5). 그러나 더 이상 썩어질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 분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살자. 모든 것이 변화될 지 아니하신 하늘의 분향!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하자.

나그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백한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벧전 2:9). 이 놀라운 특권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들은 인간의 법이나 제도로 만들 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도덕이나 인적으로 다듬어진 것들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와 나

로 연합되었다. 이처럼 세상과는 분리되고 그리스도와는 연합된 나그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다. 아직도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사는가? 그러한 삶은 창기의 삶이나 다름없다(고전 6:16,17). 구약의 백성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에도 반드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였다(민 15:38).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장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삶이다. 언제까지인가? 저 하늘의 영원한 분향에 이르는 그 날까지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이 말씀을 자제히 읽어 보라.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알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다. 그렇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는가? 나그네의 삶은 고달픈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모험이 아니냐.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맛있는 나그네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의 분향을 상속받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2:8,10).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성령께서 친히 비취 주시기 때문이다(고전 2:10). 따라서 나그네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은 슬픔과 눈물의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처음 그 길을 시작하는 때에는 그 길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고, 그 길을 걷는 중간 중간에는 성령의 동행하신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며, 그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는 길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락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길을 걸어야 한다. 곧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분향을 그리워하며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나그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여,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참미하며 걷게 하옵소서. 아멘!

(2004. 6. 30. 수요일, 위임목사님)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살이 되어야 합니다(골 4:2). 우

리 삶의 원동력, 교회 사역의 중심에 기도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너는 기도를 하며 내 곁에 머물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마 6:6). 이와 같은 은밀한 기도의 공명이 우리 교회에 새롭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 24시간 연속 기도실! 이 은총의 장소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공 책상을 두었습니다. 그 또 말로 온전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대산주 111). 이 기도의 공

새롭게 단장된 기도의 공방

"24시간 연속 기도실"(본당 113호)

방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

이 열릴 것입니다(골 4:3). 무엇보다

보다도 보혈의 주임을 만낼 수 있습니다(딤후 4:5). 새롭게 단장되었다고 해서 한 번쯤 구경하려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총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대산주 8:22).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새마데가 되어야 합니다(마 26:39).

1년 365일 24시간 기도의 공방, 은혜의 장소는 열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신성한 보혈의 공기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골 1:9). 또한 전인위례의 사무실이 이 기도실 옆으로, 소망부 교사실은 교육관 303호로 이전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²⁷⁾And Jesus went out, along with His disciples, to the villages of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way He question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people say that I am?" ⁽²⁸⁾And they told Him, saying, "John the Baptist; and others say Elijah; but others, one of the prophets." ⁽²⁹⁾And He continued by questioning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Thou art the Christ." ⁽³⁰⁾And He warned them to tell no one about Him. (Mark 8:27-30)

As Jesus journeyed with His disciples to the villages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them, "Who do people say that I am?" (v. 27). His ministry visits throughout the regions of Galilee, Judea, Decapolis, and Perea caused people to talk about Him and form certain views. The mighty miracles and godly teachings of the Son of God affected people in different ways. Some thought about the Messiah selfishly, using Him for their benefit and not God's glory. Others looked at Him as a worldly Messiah. A few filled their bellies with His power and authority, but not their hearts. Still fewer recognized Him as the Provider of salvation, Deliverer of sin, and Protector against evil.

When we look back a few verses from today's message, we find Jesus at Bethsaida, a seaside city located on the north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8:22). After He healed the blind man here, He walked with His disciples to Caesarea Philippi, a city about 25 miles north Bethsaida, built by Herod Philip in honor of Caesar Augustus. This metropolis had many temples to worship their different gods, most especially Greek gods. It was a world known location filled with religious power. After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healing many sick people, as He headed into its villages,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these people thought He was. Their responses were very similar to those we find in today's world. Whether in Asia, U.S.A., Europe, Middle East, or Africa, those who know of Jesus think of Him as a great man, wise teacher, and significant leader. Religious officials, like those in Caesarea Philippi, talk about Him and form professional opinions. Unfortunately, professional opinions are not always right, and many times dangerous. Even Christian theologians vary in their viewpoints, many professing half-truths with half deceits, which lead to very wrong outcomes.

In Caesarea Philippi, some religious spokespersons thought Jesus was John the Baptist (v. 28). Their expert knowledge on Jewish religion brought them to this judgment. Like Herod the tetrarch, they recognized Jesus' spiritual power (Mt. 14:2). Herod knew John before He had him killed. When he heard the news about Jesus, he thought it was John incarnated. These people related John and Jesus' messag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o mean that they were the same person (Mt. 3:2; Mt. 4:17). Today, many seminaries and churches teach the wrong things about Jesus, like connecting faith with worldly success. Their professional interpretations are not only wrong, but also extremely perilous.

Others in Caesarea Philippi considered Jesus to be Elijah (v. 28). These biblical professionals recounted Malachi 4:5, "Behold, I am going to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They did not really believe or trust Jesus to be Elijah, but it was an answer for them to ponder. Elijah revived the world's knowledge of the living God. He fought and won against the Baal priests. He prayed for no rain, and it did not rain for many years. It was not until he prayed for rain that the rain miraculously came. In between, Elijah fed himself and two others with just a little flour and oil, just as Jesus fed the thousands with a little bread and fish. These wise and intelligent people perceived Jesus to be Elijah. Their studies

and mindset led them to look at and talk about Jesus as if He were Elijah.

Still others in Caesarea Philippi regarded Jesus as "one of the prophets" (v. 28). They knew the words,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Moses] from among you, from your countrymen, you shall listen to him" (Dt. 18:15). They remembered God saying, "I will raise up a prophet from among their countrymen like you [Moses], and I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shall speak to them all that I command him" (Dt. 18:18). Surely, to them, this prophet was Jesus. They viewed Him as a man to listen and follow after. They wanted to receive grace through human effort and power. His teachings were great and He had tremendous religious value. He contributed much, and they were willing to abide by Him as martyrs. The only problem was that they did not find out He was the Son of God; they just looked at Him as a respectable man of God. Like the people in Jesus' hometown, who Jesus wondered at their unbelief, they could not see His divinity, only His humanity (Mk. 6:3, 6).

After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the people of Caesarea Philippi thought He was, He turned around and directly asked His disciples,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v. 29)? Right now, Jesus Christ wants to know who you think He is. From this question, whatever your answer, comes a critical result that determines your eternal destiny. Simon Peter answered i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t. 16:16). Do you have this kind of answer in your heart, or do you look at Jesus for fame, fortune, and respect. Perhaps, you think of Jesus in professional terms to fit your intellectual level, or maybe, you just think of Him as someone you can use to get what you want. I do not know what you think. All I can tell you is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He was born of the Holy Spirit (Mt. 1:18). He saves His people from their sins (Mt. 1:21).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that Jesus can save you by delivering you from your sins, or do you believe in Him so that He can give you earthly blessings?

My dear friend, the Bible tells u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n. 1:1-4). Jesus Christ is the Word of God. He is Life! He warned His disciples, "Watch out!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and the leaven of Herod" (Mk. 8:15). Please be ever so careful with the professional teachings of famous theologians and pastors. Be a believer in the Word of God. Read your Bible and listen to the Holy Spirit's voice. He will talk to you and tell you about Jesus. You have to know who Jesus Christ is. You have to know the whole truth, "like newborn babies, long for the pure milk of the word, so that by it you may grow in respect to salvation" (1 Pet. 2:2). As you leave the church today, go in God's grace,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Acts. 20:32). Amen. 📖

다들 주일 설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막 8:27-30)



김성완 목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7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데카볼리, 베로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놀라운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이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배를 채웠지만 결코 자신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그가 구원을 베푸시기, 죄를 사해 주시며,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벳새다에 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벳새다는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막 8:22). 예수님은 이곳 벳새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해롯 빌립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로 이방신 특히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신당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로 향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현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마귀, 악령, 중동, 아프리카 등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리켜 위대한 사람, 지혜로운 선생,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현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주님에 대해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해로운 것은 전문가의 견해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의 말은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조차도 각자 보는 관점이 다양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가이사라 빌립보의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28절). 이것은 유대교의 정통파들이 모든 지식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인정했음에도(막 14:22), 해로운 요한을 처형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즉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라는 말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 3:17, 4:17). 오늘날은 신학과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해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세상적인 성공을 연관짓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전문성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해석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을 아주 위험한 신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엘리야

가이사라 빌립보의 또 다른 부류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28절). 이 성경 전문가들은 말라기 4:5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신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에 불과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따로 살아 계신 참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람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놀랍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그는 아주 적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으로 자신과 사르밨 과부 모자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것과 비슷합니다. 자칭 지혜자도 지식인이라고 여겨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동안의 연구와 사료방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중의 하나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28절).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라”(신 18:15). 분명히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청중하고 본받아야 할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은총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고 종교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예수님을 순교자로 여기며 기꺼이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 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보내신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그분의 인생만을 보았던 것입니다(막 6:3,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묻고 난 뒤,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29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됩니다. 사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명성이거나 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어렵고 세련된 전문 용어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마 1:18).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마 1:21).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그분을 믿습니까?

말씀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계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막 8:15). 성도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나 목회자의 지식적인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가 되십시오.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대해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진리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오늘 교회를 나서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새우라 기록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리라”(행 20:32). 아멘.

Centurion Crucifier

Thank you Lord Jesus
for using the worst sinner
to declare You are the Son of God.

Thank you for using me,
and all who fall short of your glory.

Open our hearts
dear Lord to proclaim to other people
that You truly are the Son of God.

Let Your Holy Spirit gives us the words
to tell the simple gospel story of Gods loving act
of reconciliation of men to Himself in You,
His Son, our Savior,
who lived and died for all men.

Like the centurion,
let out mouths confess Your truth. Amen.

어찌 다 감사하오리까?
죄인 중의 괴수를 사용하사
당신의 성자(聖子)되심을 선포하시다니요.

어찌 이루 감사하오리까?
미친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다니요.

사랑하는 주여,
우리 마음 문을 여시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 입에 전할 말을 주소서.

만인을 위하여 사셨고 죽으신 당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당신 안에서
죄인들을 화평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역사!
그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백부장처럼
우리의 입도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Rev. Kim Sung Kwan

*위임직사남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마 27:45-54 / 2003.10.5 설교 후에 드렸던 기도문)

【 은퇴를 앞둔 장로가 고백하는 십자가 복음 】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시 118:28)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한 평생 섬긴 시간들을 되새겨 볼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이었음을 알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시 118:28)의 고백은 정년으로 사무장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말하고 싶은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러한 귀한 시간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이며 여전히 죄인인 자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때를 따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클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 벅찬 한 장 한 장 옮기면서 예배당을 짓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로로 강립되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있었기에 진실로 회개의 자리에 겸허히 설 뿐입니다.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은퇴를 앞두고 특별히 예배위원장으로서 섬기게 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배위원장으로 섬기면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더 성실히 준비된 예배, 보혈의 은혜로 자유하며 진리 가운데 드러나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더 풍성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와 영으로 부르는 찬송, 헌신과 다짐을 갖는 기도 등 모든 순서에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참여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이

서 갈등이 있었고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며 큰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부했던 어그러진 신앙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실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강단을 통해서 늘 깨닫는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벽차오르는 감사와 기쁨은 분명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섬겼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 분도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때의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들이 존재했던 것 같지만 은퇴를 앞두고 돌이켜볼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이 있었으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 무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대속의 역사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경험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1)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진국 (예배위원장)

체험해 보지 않고는

그 땅은 선교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고 하여 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곳으로 떠났다. 도착한 날 밤에 생긴 처음 2층 버스를 타고 선교지로 이동을 했다. 차 안의 지독한 냄새를 견디며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버스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아침에 도착하니 온 몸이 매를 맞은 듯 피곤하였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굳게 다짐하고 기도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려 나섰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려서 주위의 자연이 정말 깨끗했다. 자연을 보느라면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가 절로 나왔다. 온 들은 옥수수와 해바라기, 넓은 초원 그 위로 군데군데 양떼와 목동들, 소와 말의 어울림,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단지 이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커져만 갔다.

정답을 끝내고 이튿날은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였는데 들관의 사람들, 길가의 사람들 모두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물에 빠지고 온몸이 흠뻑 젖어 되어서 마음이 기뻐졌다. 튼튼들의 수고와 정말 아름다웠다. 목동들에게 양들이를 해 주면서 풀을 베는 청년들에게 같이 풀을 베면서, 밭에서 풀을 뽑는 아낙들에게 같이 풀을 뽑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먼 곳으로 왔기 때문에 빵과 물로 짐을 대신했다. 두 분의 운전기사를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말문을 트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식구였다. 아무도 알려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소개시켜 주지 않아도 주님의 섭리에 정말 놀랐다. 믿음의 식구임을 알고 난 뒤로는 기사들이 통역관이 되어서 전도에 동참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전도이기에 더욱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

그 넓은 초원 위에서 마지막 이들 동안은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을 돌며 전도하였다. 이처럼 1대 1 선교사가 되어 죽어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였다. 내가 만난 특별한 사람들... 그 중에서 한 청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전도지를 주고 성경을 주고 교회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는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목이 메도록 울면서 기도하였다.

누구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땅에 뿌린 씨앗이 모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병지(권사, 12교구)

귀중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저희 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기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의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에 의해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마을에 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전도지를 보며 한 줄 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집안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 사진과 성경, 찬송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기뻐 함께 찬양을 하였고 아저씨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아저씨의 성함을 물어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반복하며 뛰가며 무척 놀란 듯 집밖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당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였고, 우리는 아쉬움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으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마귀들이 시험하고 우리들의 사역을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흔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 팀을 사랑하셔서 복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대학부)

"주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처음 사역이라 두려움도 컸고, 인간적인 낙담도 있었지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라는 믿음으로 선교지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첫날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를 날보다 셋째 날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날로 날로 새로웠고 더더욱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역을 준비할 때부터 이번 사역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고, 살아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부족한 내게 보여주셨다.

사역 셋째 날, 그 곳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어렵고 환경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곳에 바로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고, 성령님의 인도로 그들에게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의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팀의 한 자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고, 그 눈빛에서 그들을 향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 때 '바로 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나에게 확신이 생겼다. '정말 살아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 속으로 감사함을 외치고 찬양하면서 속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가벼웠다.

항상 우리 팀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와중에 선교지의 하늘은 정말 높고 푸르렀다. 구름은 마치 조각한 것처럼 정갈한 풍경이었다. 그 풍경을 감사함으로 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 구름 조각들이 모여서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펼쳐서 안위를 주었다. 그 위의 구름에서 예수님이 정말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 보고 계셨다.

정말 우리가 뿌린 씨앗은 심히 미약하나, 그 땅에 뿌린 씨앗들이 주님의 열매들로 자라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전진영(성도, 13교구)



이런 주에 감동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6일(화) - 10월 4일(화)	7교구 4지역	정일남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추가)	남은희
9월 28일(화) - 10월 5일(수)	12교구 8지역	이병영	9월 28일(수) - 10월 7일(금)	장년부(1)	이종현
9월 28일(화) - 10월 5일(수)	16교구 4지역	홍원석	9월 29일(목) - 10월 8일(토)	17교구(추가)	윤석민
9월 27일(화) - 10월 6일(목)	10교구(추가)	김현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14교구(추가)	홍현정	9월 23일(토) - 10월 1일(토)	청년2부(1)	최우근
9월 20일(화) - 9월 30일(금)	14교구(추가)	이근호	9월 24일(토) - 10월 3일(토)	5교구(추가)	김영숙
9월 21일(수) - 9월 30일(금)	1교구 8지역	김종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15일(토) - 9월 20일(화)	유아부	이서영	9월 16일(토) - 9월 24일(토)	청년2부(1)	정재영
9월 15일(토) - 9월 20일(화)	청년1부(1)	문은석			

다니엘의 믿음

"내 하나님이며 네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을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와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 22:1,19)

2005년 3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 목표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읽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 부모님,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심정에서 보게 된 시편에 이 말씀이 있었다.

그 때 정말로 너무 힘들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봐 두실까' 하는 생각에 의심마저 들었다. 혼자서 '주님 버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잡아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 때 주님은 또 다시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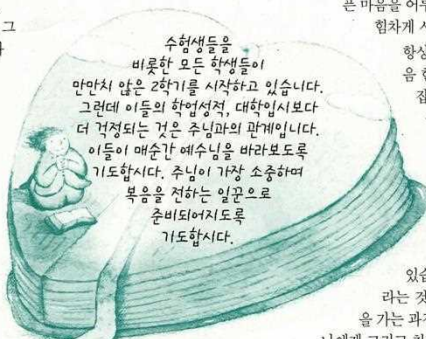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 지금까지 지탱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나에게 주님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다. "다니엘이 이 조시에 어인이 썩힌 것을 알고 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의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내가 만일 다니엘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명령이 있는 동안만 숨어서 기도하거나 내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타협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제 70여 일 남은 수능 때문에 '잠시만 주님, 수능만 끝나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을게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라며 타협하고 말았다.

몸이 힘들고 영이 지쳐 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타협하는 것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무 뻔한 말이지만 사실이고 진리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기간을 잘 이겨 나가길 기도한다. 십자가 파워로!

이지연 (고등부)



수험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만약치 않은 2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학업적, 대외적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주님과와의 관계입니다.
이들이 매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1학기 수시 모집에 모두 떨어지고 힘들게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항상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제였고, 그 힘으로 2학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애매 시간마다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에 나는 주님의 군사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에게 예비하신 길을 생각하며 이겨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수능이 70여 일 정도 남은 시점에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저마다 신세 타령을 하기도 하고, 혹은 수능에서 대박이 터지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능 점수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고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 길을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작은 목표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용기와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일만 되면 학원으로, 독서실로 모자란 공부를 하러 바빠 가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 자신이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서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낙담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사자군 앞에서 끝까지 앞만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이 저와 모든 고3 수험생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슬기 (고등부)

내가 느끼는 청년 1부는?

"말씀이 살아 있는 청년부" - 조혜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은혜의 바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민영

"살롱-하고 방긋 웃는 인사" - 김연진

"시원한 물을 날 높고 푸른 하늘 같은 청년부, 추운 겨울날 늑대 목도리 같은 청년부" - 정은미

"집회와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는 말씀과 교제가 좋고 은혜가 넘치는 곳" - 유하나

"과무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면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 아쉬운 모임" - 김소희

"인생의 치열함을 경솔히 들어내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이덕용

'청년부'라는 세 글자를 머리에 떠올리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을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곳? 좋은 사람과의 건전한 교제가 있는 곳?晤을 얻는 곳? 청년부는 하나지만 아마도 개인이 느끼는 이 모임은 각각이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임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청년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청년부를 어떠한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이 모임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얻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청년부 공동체에 몸을 담고 집회에 참석하며 더 나아가 이 선한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을 확신한다.

80년생 이하 동지들이 헌신집회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집회를 원하시며 이 선한 모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80년생 이하 동지들의 마음처럼 충현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고자 할 때 '충현'이라는 글자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지어지리라 믿는다.

(청년부 문서팀)

믿음

2학기가 시작 되었다. 벌써 반 년이나 지났다... 돌아 보면 후회가 참 많다. 처음에 다짐했던 일들 중 공부 잘하기, 전도하기, 학교 생활 문제 없이 하기 등... 계획 세웠던 것을 의지가 약해서 많이 이루지는 못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잘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중학교 생활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항상 처음에 가지는 긴장감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던 처음 경험하는 중학교 생활치고는 쉬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니 담대해졌고 걱정이 말끔히 사라졌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중등1부의 면려회 활동은 나를 더욱 단련시켜 주었다. 면려회에서는 예배 후 모여 말씀의 은혜를 다시 나누는 데, 말씀을 깊이 새기기에 좋은 소그룹이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게 좋아졌다. 교회에 오기 좋아하니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만큼 믿음도 많이 많겠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정다은 (중등1부)

교회 탐방 81 초등부 교사회

예수님의 마음, 교사의 마음

주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자주 일러 주시다. 지금은 어른인 우리도 예전에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부단히 만치를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른이 되고야 말았다. 믿음의 때가 묻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어른들은 주님과 부딪쳐도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어린이들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

초등부는 어떤 부서인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부의 표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뿐입니다. 280여 명의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교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서영식 목사, 부장)

초등부에서 부장의 역할은?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잘 섬기는 것이 외무라면 저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종영 목사, 부장)

신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교회와 처음 온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연미, 신임교 과장)

한 사람의 신앙 여정에서 초등부는 어떤 기간입니까?

유치, 유년부와 달리 자외사의 생기고 자주적인 믿음을 가지는 때입니다. (오경희, 교사)

스스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혜성, 교무처장)



초등부 교사가 된 동기는?

저는 어린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중심으로 돌아가서 백지 같이 깨끗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한경우, 교사)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부서를 떠나,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니 초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김신영, 교사)

교사로서 맑은 밤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안 나온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리에 앉은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오경희)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열심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신영)

섬김하게 되는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끝나줄에 물 주는 마음입니다. 또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제가 먼저 보인 보이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경우)

초등부 교사로서 어린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가식 없는 모습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오경희)

복음을 위해 따돌리는 선생님들의 믿음을 보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이종영)

복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어린이들을 보면 언제나 부러움을 느낍니다. (오혜성)

언젠가는 말씀을 듣고 우는 아이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의 부모님이 천국에 못 갈까 봐 운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이연미)

아이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줍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김신영)

그들의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을 보면 늘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아름다운 아이들도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경우)

지난 1년 동안의 결실을 소개해 주십시오.

학교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 명이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생들에게 꾸준히 충격을 독려하였습니다. 또 주일에만 선생님이나 다중예도 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서영식)

성도 여러분! 우리 초등부를 비롯한 모든 교육부서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께서 자녀들을 영령에 맞는 교육과정에 충실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오혜성)

어린이들을 늘 열매 되고 말복을 가르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위임받은 일꾼, 초등부 선생님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주님의 모습을 상상한다.

(편집실)

다움주일 찬송

84장

나 어느 날 꿈 속에서 헤매며

레이라 네일러 모리스(Lila Taylor Morris, 1862~1929)가 작시 작곡한 찬송가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환상으로 본 것을 찬양한 것이다. 이 찬송의 작사가 모리스 여사는 환상 속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보았고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몇몇 주요 사건들을 환상 속에서 본 것을 찬송으로 옮겼다.

1절은 작시자가 환상 속에서 피도다 살려내시는 이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낚는 사람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소망이 눈 뜨고 절뚝발이 가는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배부신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절을 쓰고 있다.

후렴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모할 주님으로 또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의 구주로 섬길 것을 찬양한다. 또한 4절 후렴을 통해서도 주님을 내 친구로 또한 그분이 내 구주임을 다시 한 번 찬양한다.

2절은 이 죄인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잊을 수 없음을 말하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의 죄를 풀어 주시기 위해임을 찬양한다.

3절은 바리새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할 때 우리는 참된 신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듣고 의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4절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일할 때 맘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 놀라운 주님을 마음에 모실 것을 강하게 권면한다.

오늘 우리도 꿈 속에서라도 주님과 만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에 향해 걸어가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나감 수 있다. 충현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임을 확신하며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00	조혜정	9	청년2부	임영선(1)	2673	황기영	19	고등부	홍은기(3)
2601	나영민	19	대학부	정우진(3)	2674	한기종	10	청년2부	정미라(12)
2602	오정희	14	청년2부		2675	반나트	19	외선부	최정숙(4)
2603	노태관	19	청년1부	장진희(1)	2676	리타카	19	외선부	이순기(8)
2604	김희자	7	장년3부	김현철(4)	2677	인다바	19	외선부	이연규(4)
2605	김인숙	4	장년2부	권명옥(4)	2678	소기훈	19	외선부	임옥재(4)
2606	이민조	5	소망부	박영숙(4)	2679	나타리카	19	외선부	서상진(13)
2607	장석주	2	장년1부	전우석(2)	2680	누원	19	외선부	서상진(13)
2608	황정호	6	청년2부	이진규(4)	2681	구미라	19	외선부	서상진(13)
2609	김도현	19	중등3부		2682	크리스	19	외선부	서상진(13)
2670	이정민	6	장년3부	황용숙(4)	2683	양명숙	13	장년3부	김준재(4)
2671	공영진	10	청년1부	문영숙(10)	2684	김한수	17	대학부	김영재(17)
2672	서정아	19	고등부	김진대(2)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